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지 삼 업[†]

(부경대학교)

The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activities of Marine Sport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sociality.

Sam-Up J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4, 2006 / Accepted November 15, 20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know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ctivities of Marine Sport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sociality by comparing students in this activities with those who are not in this activities.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Busan at present. The total number of the object is 146, including 74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organization and 72 students who didn't participate in this organization.

We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after analyzing the materials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research. In the domain of activity, the students who are in Marine sport activitie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In the domain of stability, the students who are in Marine sport activiti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In the domain of ascendancy, the students who are in Marine sport activiti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In the domain of sociability, the students who are in Marine sport activiti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In the domain of self-control, the students who are in Marine sport activities are meaningfull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not.

Key Words : Marine Sports, development of their sociality.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 삶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를 찾아 오랜 기간 방황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이근모·김찬룡·이재형, 2003).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신체의 각 부위와 지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여러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자극을 주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이 일생을 통해 나타나는 마지막 발육의 급증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스포츠활동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청소년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16, water@pknu.ac.kr

의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 형성체로 기초 공동체적 역할이 기대되어 왔으나 결손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정교육의 잠재적 기회 상실, 대화 단절 등으로 1차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행자인 가정이나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영복, 1990).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지식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지육 중심의 교육,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심, 인간관계의 왜곡, 교육의 획일화, 여가교육의 부재 등이 청소년의 욕구불만,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문제 요인이 되어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사회는 기계화, 정보화, 조직화로 인한 비인간화의 경향이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대중매체의 선정적 자극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 규격화된 생활과 기성세대와의 의식차이는 청소년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소외감을 갖게 하였다(김진화, 1999).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해양스포츠 활동은 육상스포츠가 갖는 운동효과를 포함하는 가운데 자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해양도전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 복잡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박철수·윤이중, 2001).

인간은 생활환경에서 자연을 잃게 되면, 잃게 된 정도만큼 자연에서의 활동을 갈망하게 된다.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긴다는 것은 잠자는 인간의 본성을 흔들여 깨우고, 또 몸과 마음을 모두 정화·재생시켜 주는 등 인간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는 청소년 발달적(육구의 충족·사회성 및 정서의 발달·태도·흥미·능력, 사회적 규율 등) 가치, 진단적(자기평가·자기 발견 기회 제공 등) 가치, 치료적(새로운 습관의 형태를 발달) 가치, 학교 및 지역사회(개인 능력의 최상 발달)에 대한 가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지삼업, 2003).

미래 신해양의 시대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해양스포츠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의는 현재 만연되고 있는 도심의 콘크리트 벽의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과 같은 폐쇄적인 여가활동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드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여가활동을 체험케 함으로써 호연지기를 체득하고 친 해양 정서를 기르며 나아가 미래 해양국가의 주역이 될 소양을 기르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박철수와, 2001).

결국 육상스포츠 중심의 편향적인 중등학교체육교과과정을 몰과 해양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상오토바이, 바다수영, 스포츠잠수(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세일딩기, 세일크루저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 종목을 다수 추가하는 등 사회 변동에 따른 체육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절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성발달에 관한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구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양스포츠의 체육적 적합성을 입증, 중등학교체육교과과정에 해양스포츠가 대거 수용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자율적인 스포츠(체육) 활동이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고등학생 중 해양스포츠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해양스포츠활동에 따른 사회성발달 변화의 편차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과 활동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지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사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자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해양소년단원 1학년 80명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교군은 특별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학생 1학년 80명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일차 표집된 조사대상은 160명이었다. 그러나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또는 조사내용이 일부 누락된 14명을 제외함으로써 결국 실험군 74명, 비교군 72명 등 총 146명을 이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조사대상자 현황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고등학생	해양소년단원	74	50.68%
	일반학생	72	49.32%
	합계	146	100%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따른 사회성발달 변화의 편차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인접분야 정범모(1971), 고종성(2003), 김동헌(2000), 이현구(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연구자가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재작성하였다. 그 다음은 질문지 문항의 타당성 검증에 의해 교육전문직 3인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작성된 질문지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문항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구성은 해양소년단과 일반학생을 구분한 뒤, 그다음은 성별로 구분하고 이어서 이현구(2001)의 선행연구에 따라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순으로 사회성의 하위요인을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성 발달 문항의 응답척도는 5단계척도(5-Likert Scale)법을 적용했다.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순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다(5점), 그렇다(4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다(1점) 순이다.

<표 2> 설문지의 구성지표와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세부 문항수)	문항수
사회성 발달	활동성(5)	25
	안정성(5)	
	지배성(5)	
	사교성(5)	
	자율성(5)	
일반적 현황	학년(1)	3
	성별(1)	
	해양스포츠참여 여부(1)	
계		28

설문지의 신뢰도 측정은 요인별 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Cronbach's 계수로 산출했다. <표 3>에서 밝힌 것과 같이 활동성(.7667), 안정성(.7613), 지배성(.7453), 사교성

(.6959), 자율성(.7765)으로 각각 나타난 가운데 신뢰도 계수 역시 .6959~.77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구분	문항번호	Alpha (Cronbach's α)
활동성	1,2,3,4,5,	.7667
안정성	6,7,8,9,10	.7613
지배성	11,12,13,14,15	.7453
사교성	16,17,18,19,20	.6959
자율성	21,22,23,24,25	.7765

3.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는 해양소년단과 일반학생을 먼저 구분하고 다음으로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표집,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SPSS10.0 프로그램을 이용, B대학교 통계학과 전자계산소에서 처리하였고, 각 문항별 결과처리는 반응빈도와 백분율(%)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1) 활동성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활동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나는 늘 힘이 있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0±1.14이었고, 일반학생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04±.98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고, 유의도 역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천천히 해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3.16±1.27 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0±1.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4±1.12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6±1.09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판단을 빨리 내리는 편이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48±1.14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95±1.05로 나타나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9±1.07 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2.90±1.14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고,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해양소년단원과 일반학생의 활동성 차이 검증 : T-test 분석결과

구분 문항	그룹(n)	M±S.D	t-value	p
늘 힘이 있다	해양소년단원(n=74)	3.60±1.14	3.201	.002
	일반학생(n=72)	3.04±.98		
천천히 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해양소년단원(n=74)	3.16±1.27	1.840	.068
	일반학생(n=72)	2.80±1.05		
몸을 많이 움직인다	해양소년단원(n=74)	3.64±1.12	4.285	.000
	일반학생(n=72)	2.86±1.09		
판단을 빨리 내린다	해양소년단원(n=74)	3.48±1.14	2.891	.004
	일반학생(n=72)	2.95±1.05		
몸의 움직임을 즐긴다	해양소년단원(n=74)	3.79±1.07	4.884	.000
	일반학생(n=72)	2.90±1.14		

2) 안정성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나는 짜증이 날 때가 많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14±1.14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2.64±.95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걱정을 자주한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3±1.30 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36±.99이며, 두 집단 간에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5±1.15

<표 5> 해양소년단원과 일반학생의 안정성 차이 검증 : T-test 분석결과

구 분 문 항	그룹(n)	M±S.D	t-value	p
짜증이 날 때가 많다	해양소년단원 (n=74)	3.14±1.14	2.598	.010
	일반학생 (n=72)	2.69±.95		
걱정을 자주한다	해양소년단원 (n=74)	2.83±1.30	2.477	.014
	일반학생 (n=72)	2.36±.99		
혼자중얼거 릴때가 자주있다	해양소년단원 (n=74)	3.85±1.15	4.323	.000
	일반학생 (n=72)	2.97±1.29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것 같은 생각이 든 다	해양소년단원 (n=74)	2.89±1.16	1.674	.096
	일반학생 (n=72)	2.58±1.05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하다	해양소년단원 (n=74)	3.05±1.30	.982	.328
	일반학생 (n=72)	2.84±1.24		

이었고, 일반학생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97±.129으로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 때가 있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9±1.16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58±1.05이므로 두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는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진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05±1.30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84±1.24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지배성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지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 해양소년단원과 일반학생의 지배성 차이 검증 : T-test 분석결과

구 분 문 항	그룹(n)	M±S.D	t-value	p
누구와도 사이좋게 이야기 할 수 있다	해양소년단원(n=74)	3.72±1.11	2.878	.005
	일반학생(n=72)	3.20±1.07		
친구와 일을 할때 내가더잘할때 가 많다	해양소년단원(n=74)	3.63±.80	3.344	.001
	일반학생(n=72)	3.13±.98		
내 생각을 남에게 잘이해시킨다	해양소년단원(n=74)	3.70±.88	3.643	.000
	일반학생(n=72)	3.11±1.06		
내가하는일에 자신이없다	해양소년단원(n=74)	3.93±.76	4.551	.000
	일반학생(n=72)	3.25±1.03		
여러사람 앞에서 말을 잘한다	해양소년단원(n=74)	3.32±1.15	3.847	.000
	일반학생(n=72)	2.63±.98		

‘나는 누구와도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2±1.11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0±1.07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친구와 일을 할 때 내가 더 잘하는 때가 많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63±.80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13±.98로 해양소년단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 생각을 남에게 잘 이해시킨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0±.88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11±1.06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93±.76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5±1.03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한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2±1.15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2.63±.98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보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교성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사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해양소년단원과 일반학생의 사교성 차이 검증:T-test분석

구 분 문 항	그룹(n)	M±S.D	t-value	p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해양소년단원 (n=74)	3.82±.92	2.933	.004
	일반학생 (n=72)	3.34±1.03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해양소년단원 (n=74)	2.56±1.30	1.960	.052
	일반학생 (n=72)	2.18±1.06		
부모님과 함께있으면 즐겁다	해양소년단원 (n=74)	3.71±.94	1.879	.062
	일반학생 (n=72)	3.36±1.31		
식구들은 나를 소중히여긴다	해양소년단원 (n=74)	4.27±.81	2.875	.005
	일반학생 (n=72)	3.75±1.31		
식구들과 잘싸운다	해양소년단원 (n=74)	3.81±1.08	2.800	.006
	일반학생 (n=72)	3.25±1.32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2±.92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4±1.03으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친구들은 일반학생들보다 해양소년단원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56±1.30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18±1.06이었다.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1 \pm .94$ 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6 ± 1.31 이었다. 두 집단간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식구들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4.27 \pm .81$ 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75 ± 1.31 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식구들과 잘 싸운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1 ± 1.08 이었고, 일반학생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5 ± 1.32 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자율성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원은 일반학생과 지배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나는 윗사람의 말이라도 솔직하게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52 ± 1.07 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2.79 ± 1.20 으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의 경우, 일반학생들보다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8> 해양소년단원과 일반학생의 자율성 차이 검증 : T-test 분석결과

구 분	구 분	그룹(n)	M±S.D	t-value	p
윗사람의 말이라도 솔직하게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해양소년단원	(n=74)	3.52±1.07	3.885	.000
	일반학생	(n=72)	2.79±1.20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해양소년단원	(n=74)	3.82±.83	3.332	.001
	일반학생	(n=72)	3.26±1.17		
남에게 의지하려는 때가 많다	해양소년단원	(n=74)	3.39±1.04	4.283	.000
	일반학생	(n=72)	2.62±1.11		
남을 따라서 일을 하는 때가 많다	해양소년단원	(n=74)	3.35±1.05	4.216	.000
	일반학생	(n=72)	2.61±1.06		
내가 알아서 일을 한다	해양소년단원	(n=74)	3.85±.83	4.921	.000
	일반학생	(n=72)	3.04±1.13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2 \pm .83$ 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6 ± 1.17 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남에게 의지하려는 때가 많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9 ± 1.04 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62 ± 1.11 이었고 유의도 역시 .001 수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들이 해양소년단학생들에 비하여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나는 남을 따라서 일을 하는 때가 많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35 ± 1.05 이었고, 일반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2.61 ± 1.06 으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가 알아서 일을 한다’에 대한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85 ± 1.83 이었고, 일반학생들은 평균 및 표준편차는 3.04 ± 1.13 로 해양소년단 학생들의 평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 역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 의

이 논의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사회성이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성, 단체, 사회 환경적 특성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 ‘해양스포츠 활동’을 실시하는 해양소년단원들의 경우 사회성발달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의 5개 항목에 걸쳐 개인의 성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각 분석하고자 하였다.

1) 활동성

첫째, ‘나는 늘 힘이 있다’에 대체로 그렇다에 많은 학생들이 답을 하였고, 일반학생들과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해양소년단원들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둘째, 나는 ‘천천히 해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라는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이나 일반학생들 모두 평균값을 나타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양소년단의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도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양소년단원들과 일반학생들 모두 ‘천천히 해라’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에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셋째,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의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은 ‘그렇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

고, 반면에 일반학생들은 ‘잘 모르겠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유의도의 차이는 현저히 나타났다.

넷째, ‘판단을 빨리 내리는 편이다’의 질문 역시 해양소년단원들은 ‘그렇다’에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일반학생들은 ‘잘 모르겠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유의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다’의 여부에 해양소년단원들은 ‘그렇다’에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일반학생들은 ‘잘 모르겠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활동성에 관한 질문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활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가지 활동성에 관한 전문항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김동현(2000), 김연수(2001)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정성

첫째, ‘짜증이 날 때가 많다’의 질문에 두 집단 간 모두 평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학생들 집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들이 해양소년단원들 보다 평소에 짜증을 더 많이 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걱정의 여부’에 대한 질문은 두 집단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두 집단의 특성상 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사료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은 해양스포츠를 함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나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자주 있다’의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수준이나 해양소년단원들은 ‘그렇지 않다’에 응답을 많이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평균보

다 낮다. 그러나 해양소년단원들이 유의한 차이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의 특성상 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성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진다'의 여부에 대해 두 집단간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심리적인 복잡성이 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안정성의 질문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는 있지만 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응답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양소년단원들은 해양스포츠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학교생활과 입시 고민에 힘겨워하는 고등학생의 육체적 건강과 정서순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소시킴으로써 일반학생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사료된다.

3) 지배성

첫째, '누구와도 사이좋게 이야기 한다'의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5 이상의 평균차를 내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친구와 일을 할 때 내가 더 잘하는 때가 많다'의 질문 역시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5 수준의 평균차를 내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내 생각을 남에게 잘 이해시킨다'의 질문 또한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5 이상의 평균차를 내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넷째,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의 여부도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5 이상의 평균차를 내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들 보다 본인이 하는 일

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의 질문에는 해양소년단은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일반학생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해양소년단원들보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배성에 관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현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연수(2001), 김동현(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4) 사교성

첫째,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의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의 평균보다 .5 수준의 평균차를 내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의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이하로 응답을 하였고, 일반학생들은 '그렇다'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들은 해양소년단원들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려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의 여부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 집단 모두 부모님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리 식구들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의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이 일반학생의 평균보다 .5 이상의 평균차를 내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식구들과 잘 싸운다'는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고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의 평균보다 .5 이상의 평균차를 내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 모두 혈연직계(直系)인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교성의 관한 질문에서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의 질문 이외의

문항에서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집단은 대체적으로 사교성에 관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교성의 분석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로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보다 더 사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연수(2001), 김동현(2000), 고종성(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5) 자율성

첫째, '윗사람의 말이라도 솔직하게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의 질문에는 해양소년단원들의 응답은 평균이상이며, 일반학생들의 응답은 평균이하로 아주 큰 유의차를 나타냈다.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밝힌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의 질문은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의 평균보다 .5 수준의 평균차를 내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책임감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에게 의지하려는 때가 많다'의 질문에 해양소년단원들의 응답은 평균이상이며, 일반학생들의 응답은 평균이하로 아주 큰 유의차를 나타낸다. 이는 일반학생들이 해양소년단원들에 비하여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넷째, '남을 따라 일을 하는 때가 많다'의 질문 또한 해양소년단원들의 응답은 평균이상이며, 일반학생들의 응답은 평균이하로 아주 큰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내가 알아서 일을 한다'의 여부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의 평균보다 .5 수준의 평균차 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소년단원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는 책임감과 자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해양소년단원들의 응답은 평균 이상으로 응답을 하였고, 일반학생들은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이하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자율성 역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들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소년단원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자율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성발달을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구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양스포츠의 체육적 적합성을 입증, 중등학교체육교과과정에 해양스포츠가 대거 수용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해양소년단원 1학년 74명과 일반학생 1학년 72명 등 총 146명을 대상으로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30일 까지 연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정력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첩하고, 부지런하며, 일을 좋아하고, 또한 주어진 시간에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특성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또 두 집단간에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양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활동성에 있어 더 적극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2.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성숙되어 있고, 극단적인 희로애락의 감정에 흐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침착하고 자아가 조절되어 어떤 부담스런 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동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활동할 때 앞장서기를 좋아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공격적이고, 자기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등 지휘·감독·통솔하려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고, 또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지배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4.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대인 적응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사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 행위를 제어하고,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기 나름의 독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자율성이 한층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진구, 아동의 스포츠 참가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고종성, 중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

회화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동헌,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연수, 중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진화, 청소년 지도학, 서울: 학지사, p.48, 1999.

김호정, 허전, 한글 SPSSWIN 10.0, 삼성사, p.209, 2004.

류정무, 스포츠심리학, 서울: 명지출판사. p.156, 1983.

목지인, 초등학교 여학생의 무용교육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경수, 청소년 단체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20, 1993.

박용현,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p.76, 1988.

백정숙,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윤이중, 박철수, 해양스포츠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4권 제2호, p.318, 2001.

이규호, 사회화와 주체성, 서울: 익문사, p.50~97, 1975.

이근모, 김찬룡, 이재형,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 및 여가 태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4호, p.235, 2003.

이상노,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p.59, 1979.

이현구, 중학생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29, 2001.

- 임번장, 스포츠 사회학 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p.262~348, 1994.
- 정범모, 인성검사요강, 서울:코리아테스트센터, 1971.
- 정철수, 한남제, 박종석, 사회학개론, 서울: 학문, p.102, 1982.
- 지삼업, 부산지역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I): 부산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3권 제2호, 1996.
- 지삼업, 내일의 파도를 향하여, 스포츠 평론집, 부산: 해원출판사, 1996.
- 지삼업, 한국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3권 2호. p.51~52, 1998.
- 지삼업, 해양스포츠: 21세기 해양대국 건설의 해법, 해양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p.77~93, 1998.
- 지삼업, 해양스포츠 체험교육론, 해원출판사, p.47~50, 2003.
- 지삼업, 스포츠과학: 부산지역 해양스포츠산업 발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p.19, 2004.
- 지삼업외 12명, 새로운 스포츠사회학의 담론, 제일출판사, p.63, 2004.
- 지삼업, 해양스포츠 자원론, 서울:대경북스, p.50~54, 200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사원, 1996.
- 한상일, 체육행정가의 Leadership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